

전북대 IT인력양성사업단

학부생 우수논문상 수상자 배출

유대성씨 연구 발표 호평
국제학회서 우수성 인정

세계적 연구 성과 도출과 해외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등은 저명 교수나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부생이 교수 및 대학원들과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학생의 연구가 해외 학회 등에서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

전북대학교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전자공학부 송철규 교수)이다. 이 사업단 소속 유대성씨(전자공학부 4년)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IT분야 국제 학회인 'ISITC 2017'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ISITC 2017'는 첨단 정보 기술 융합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 23개 대학 및 기관이 참여해 8개 분야 11개 섹션에서 최근 연구 동향 등이 발표됐다.

유대성 학생은 이 학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 대해 기



전북대학교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IT분야 국제 학회인 'ISITC 2017'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존 연구보다 견고한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 연구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교수나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이 국제 학회에서 연구와 발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업단은 지난해 이 학회에서도

5명의 학부생이 참여해 사업단 연구 참여로 도출해 낸 연구 성과와 논문을 등록했고 유일한 학부생 우수논문상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학부생들이 이처럼 매년 연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에는 사업단 연구과제에 학생들이 참여

키고 BK사업단(단장 정용재 교수)과 연계한 대학원생 멘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메사추세츠공대 등에 매년 학생들을 파견해 세계 최정상 연구소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우수 학회에 참여해 스스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경험의 장도 마련해 주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 학생은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과 박식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철규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장은 "이번 IT융복합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수상은 BK사업단과 연계한 대학원생 멘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좋은 시너지를 보여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창의적 IT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교육개혁 방향, 가뭄의 단비 같다”

김승환 교육감,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지지
교사 수업권·평가권 강화 등 입장 동일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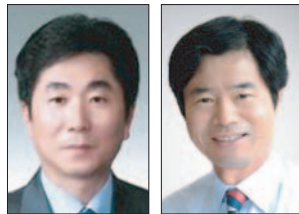
김승환(사진 오른쪽) 전북도교육감이 경기선(사진)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성 신임 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 평가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성 원장이 우리나라 교육개혁 방향의 중요한 포인트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안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편성·수업·평가권을 교사의 손으로 넘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 신임 원장의 교육개혁 의지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교육부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변한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우



리 전북교육청은 쓰디 쓴 기억을 갖고 있다. 2011년 당시 교육부는 전북의 혁신학교들을 집중 감시한 뒤

“학군 위반” 등의 사유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고발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그랬던 교육부가 갑자기 혁신학교 확대정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처럼 자기 부정을 하는 정책을 내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최소한 전북교육청과 교육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정해은 기자

‘나노섬유 대량생산 기술’ 등 잇달아 수상

전북대 김철생 교수팀
우수 연구 학회서 주목

전북대학교 김철생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연구팀 대학원생들이 최근 열린 각종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잇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 소속 이지연 대학원생(박사과정·사진 왼쪽)은 2017 추계 한국생체재료학회 학술대회에서 항균효과가 있는 천연오일을 사용한 나노섬유를 대량생산에 과일을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



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도 선정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른 과일이 비해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복숭아의 유통기한 연장 및 탄저병 예방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딸기나 망고 등의 과일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다양한 과일 질병 예방에 개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무르바타르비트게렐(박사과정·사진) 대학원생도 제13회 국제신진연구자 기술혁신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대학원생은 인체 내 삽입된 나노로봇을 사용자가 위치 제어와 약물 전달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약물과 자성나노입자를 성공적으로 합성하고 이를 원격에서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한 전자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소개했다.

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전자장치를 생성할 수 있고 이에 지정된 방향으로 자성나노 로봇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농림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해은 기자

당북초 예술꽃 새싹학교
제2회 성과 발표회 성료

군산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최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예술꽃 새싹학교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당북 인생콘서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과 그 안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우리 고유의 국악창작극으로 풀어냈다.

이번 공연은 학부모가 펼치는 난타공연, 당북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의 ‘프론티어’ 연주를 시작으로 연극과 전래동요 국악극, 탈춤, 태권무, 부채춤, 꽃춤, 난타 등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무대를 펼쳤다. 특히 전교생이 모두 무대에 올라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펼친 무대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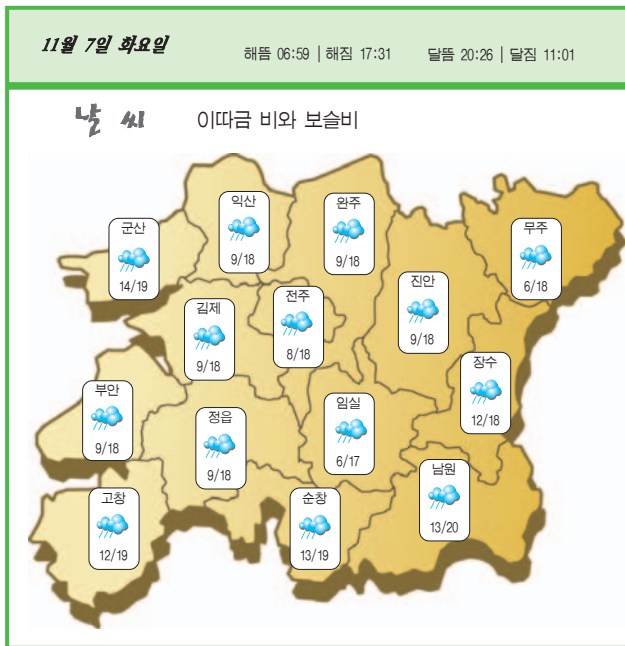
권 교장은 “예술꽃 새싹학교에 이어 새싹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익히고 창의성이 풍부해지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보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 청소년 디베이트 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이 주최하는 2017 전주 청소년 디베이트 한마당 이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남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총 48팀, 192명의 초·중등 토론 학

생, 21명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1명의 지도강사가 운영자로 참여한 이번 디베이트 한마당은 지난해까지 5회 동안 치러왔던 ‘디베이트 대회’를 개선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형태로 대회를 통해 경쟁과 승부 중심의 디베이트가 아닌 협력과 교류, 생각의 나눔 중심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디베이트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옥마을에 가 보면 한옥마을에 어울리지 않은 상점도 많아서 뭔가 전통적인 느낌을 기대했던 사람이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전통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실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갤러리 I	
등불서예전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아외전시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